| 현불 논단 |

중독사회 해독, 한국불교 화두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우리사회 만연해진 마약문제
복용자 범위도 일반계층 확대
'마약 청정국' 지위 잃어버려

재벌 · 연예인 투여 보도되지만
중독에서 벗어날 기회 부족한
마약 취약계층 관심 우선해야

붓다는 중생에 해독 가르쳤다
그 가르침 어떻게 구체화해
중생제도 나설지 고민할 때

오늘날 '마약'이라는 단어는 유혹의 용어로 등장하고 있다. 이 용어는 상품화되어 각종 먹거리 제품에 마약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소비자를 홀리고 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할 기막힌 중독의 맛을 즐기라고.

요즈음 연예인, 재벌가 등의 마약 복용에 관한 기사가 풍미하고 있다. 유엔 범죄마약국(ODC)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을 넘지 않으면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4년 전부터 그 지위를 상실하고 이미 '마약 오염국'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쉬워졌고, 마약 복용자의 범위도 일반 계층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마약의 중독성은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몸을 피폐화시킨다. 그 습관성과 의존성이 매우 강해 마약 장사는 항상 큰 이득을 남긴다. 그래서 마약은 항상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 일찍이 영국은 중국을 복속시키기 위해 아편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마약 중독의 취약계층은 빈곤층과 소외계층이다. 마약 복용자가 빈곤층과 소외계층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지금처럼 화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상류층의 마약 복용은 쾌락 추구에서 나온 것이기에 대체 쾌락을 선택하여 중독에서 벗어날 기회는 많다. 반면 빈곤층, 소외계층은 절망 상황에서 복용한 경우가 많아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한다.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취약계층에 대한 마약 중독이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 중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물신(物神))적이고 경쟁적인 삶의 양식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마약 중독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처방에 대한 논의도 매우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약 중독자를 '범죄자'로 취급한 종래의 정책에 대한 회의도 일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약 중독자를 범죄자로 취급만 할 것이 아니라 치료해야 할 '환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이 마약 환자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붓다는 일찍이 이 세간을 '중독사회'로 보았다. 인간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즉 탐(貪) · 진(嗔) · 치(癡) 삼독(三毒)에 중독되어 고해의 바다를 헤매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탐진치 삼독의 뿌리에서 나온 다양한 중독이 이 세상을 휩쓸고 있다. 돈에 중독되고, 권력에 중독되고, 명예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한 이념에 중독되기도 한다. 또한 현대사회는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중독시키는 일이 너무 많다. 중독의 유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중독의 강도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어느 사회학자는 우리나라를 '중독 공화국'이라 표현하고 있다.

오늘날 뇌 과학이 발달하면서 중독과 뇌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의 특성은 중독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중독에 매우 취약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여러 처방을 내놓고 있는데, 마치 붓다의 가르침을 차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그런데 중독에 대한 처방들을 보면 해탈의 두 종류인 심해탈(心解脫)과 혜해탈(慧解脫)의 내용이 결합된 것이다.

심해탈은 선정 수행을 통한 것이고 혜해탈은 무명을 제거하는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 붓다는 이 중독의 중생에게 해독(解毒)의 지혜와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해독은 바로 해탈이다. 그만큼 붓다의 가르침은 현실적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깊은 산중이 아니라 중독에 취해 길거리를 휘청거리는 사람을 해독하여 바로 서게 하는 것이다. 이 중독의 사회를 해독시키는 붓다의 가르침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한국불교의 큰 화두다.

社說

불교 음해하는 왜곡보도, 엄정 대응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또 다시 불교를 폄훼하는 왜곡 편파방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정 방송을 지칭하지 않아도 봉축 주간이면 불교계 비위 의혹 등을 폭로하는 행태가 나오곤 했다.

올해는 지난해 종단 수장들의 의혹을 보도한 MBC가 조계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의혹을 보도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같은 방송보도가 해당사찰의 충분한 소명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치 단정지어 조계사가 비리를 저지른 것 마냥 보도하는 것에 수많은 불자들은 공분하고 있다. 반론권 보장과 공정성 측면에서 이 같은 보도 행태는 큰 문제를 지닌다.

여기에 더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축제 기간 동안 제기된 의혹보도의 시점에도 불자들은 MBC 측에 의도적이지 않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잘못된 언론보도는 정정과 반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손해배상 등도 더해진다. 하지만 왜곡과 편파를 통해 깎아 내린 평판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일반인들에게 조계사는 하나의 사찰이 아니다. 조계종의 대표사찰로 사실상 동의어로도 쓰이고 있다. 조계사가 불교의 대표사찰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사가 비리의 온상인 것마냥 폄훼된 데에 대해 불교계는 결코 묵과해서는 안된다. 조계종단은 MBC의 연이은 의혹보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으로 부족하다.

2008년 불교계는 MB정부의 종교편향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20만명이 모였다. 당시의 시발점이 정부인사의 편향 발언과, 국토부 지리정보에서의 사찰 누락 등이었다. 특정언론사의 불교 전체를 향한 도를 넘은 행태가 지속된다면 이 언론사를 향해 범불교도대회를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제 전 불자들은 파사현정의 기치를 다시 높게 들 때다.

정해학당 개원 10주년에 부쳐

심도 깊은 불교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정해학당이 개원 10주년을 맞았다는 소식이 들린다.

2009년 4월 부산에서 처음 문을 연 정해학당은 대중성보다는 '전문성'에 방점을 두고 운영을 해왔다. 정해학당의 수업은 상식 수준에서 이뤄지는 교리 강좌가 아닌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밀도가 높은 강의로도 유명했다.

10년이 됐지만 학당을 거친 사람들은 100여 명 정도다. 15명으로 시작한 강좌 인원이 이를 초과한 적도 없다. 지금도 부산서는 12명, 안동서는 10명이 공부 중이다.

소규모 그룹 교육이지만 강한 결속력을 자랑한다. 학생 90% 가량이 5년 이상 학당에서 강의를 듣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초창기 멤버들이라고 한다.

이런 강한 결속력은 강의의 질에서 나온다. 정해학당은 사찰불교대학에서 하는 일반적인 주입식 강의는 지양한다. 강의 후에는 반드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진다. 3시간의 강의에서 경구 하나를 놓고 토론하다보니 경전 하나를 전부 교육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건 다반사다.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게 학장 오경 스님의 철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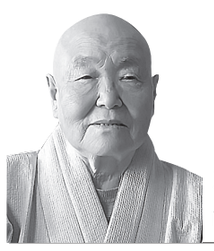
'작지만 강한' 정해학당의 개원 10주년은 불교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른 원력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부대중의 노력은 언제나 인정받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교육방법에 대한 문제다. 주입이 아닌 토론식 교육은 앞으로 불교계의 신도 교육에서도 도입이 필요한 방법이다.

개원 10주년을 맞은 정해학당의 발전을 기대해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특별기고

"정화 당시 비구니 스님 공로 인정되길"



지정 스님
前 청암사 주지

'불교정화'는 '정화운동(淨化運動)' 혹은 '정화불사(淨化佛事)'로도 불리며, 1954년부터 1962년까지 대처승의 배제, 비구승에 의한 종단 재건, 한국불교 전통 재건, 불교 근대화 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불교 내 자정운동이다.

직접적 계기는 1954년 5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처승은 물러가라'는 요지의 유시를 내린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 유시의 요지는 대처승 제도가 일제의 잔재로서 한국불교의 전통을 말살코자 한 의도가 있는 것이므로, 대처승은 사찰에서 떠나야 하며, 사찰의 주도권은 비구승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화운동은 화합을 통한 불교개혁 차원보다는 비구승과 대처승 사이의 분규 양상으로 급전됐다. 정화운동의 주도측은 비구승이 되었다. 비구 측은 일제하에서 한국불교가 타락한 원인을 대처승이 불교계를 장악한 데에서 찾았다. 그러나 수적으로 불리했던 비구측은 대처승과의 분규과정에서 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비구니 스님들도 동원했다.

음력 11월 경으로 기억된다. 범어사 대성암에 있던 나도 당시 범어사 조실이셨던 동산 스님의 명으로 부산역서 오후 6시 출발하는 완행열차를 타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서울역서 내려 견지동 조계사로 갔다.

조계사에 도착해 보니 대웅전은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다. 조계사 뒷마당엔 발이 빠질 정도로 눈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전국서 모인 대중들이 눈위에 그냥 앉으려 하자, 전국신도회장 박충석 의원이 가마니라도 깔고 앉으라고 권했다. 하지만 자운 스님이 "오늘 모인 대중들은 정화불사 때문에 왔으니, 고생이라 생각말고 그냥 앉읍시다"고 말하시자, 일제히 대중들은 말없이 눈위에 그대로 앉았다.

그날부터 소승은 전국서 올라온 스님들과 함께 조계사에 머물며 정화 운동에 동참했다. 대웅전 동쪽은 비구 스님 처소, 서쪽은 비구니 스님들 처소로 정했다. 3일간 단식 후 동대문운동장서 청와대 입구까지 서울시내를 행진 하면서 구호를 외쳐댔다. "대처승 물러가라! 아기 아빠 물러가라! 비구승이 주인이다! 총무원을 넘겨라" 등등. 단식과 시위는 그후로도 계속 되었다. 한번은 시위를 하다가 종로 경찰서에 3일간 감금된 적도 있었다.

1년 8개월동안 우리는 조계사를 지키며 계속 머물러 있었다. 한 번은 새벽 예불시간에 깡패인지 대처승인지 모르겠지만 300명 이상이 법당으로 쳐들어와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욕하고 발로 차고 밖으로 집어던지는 등 폭력과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소승도 그때의 후유증으로 60여년 이상을 위장병, 관절염, 심장비대증 등으로 투병중이다.

이처럼 정화운동서 우리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도 한 몫 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이런 숨은 공로를 인정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한국불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중 하나인 불교 정화에 참여한 공로자들을 발굴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종단 차원에서 숨은 공로자들을 찾아내 치하하는 일들이 하루빨리 추진 되기를 기대한다.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0-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